

# 延拂輸出支援制度의 機能強化方案

金 仁 竣\*

〈目 次〉

- I. 延拂輸出支援制度의 必要性
- II.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의 現況
- III. 延拂輸出支援制度의 問題點
- IV. 延拂輸出支援制度의 強化 및 改善方案

## I. 延拂輸出支援制度의 必要性

延拂輸出支援制度의 目的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金融을 中長期信用에 의해 공여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전한 발전과 對外經濟協力을 촉진하는 데 있다.

輸出支援金融은 주로 선박, 플랜트 등 資本財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종목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금의 회수 또한 一覽拂보다는 장기에 걸쳐 延拂로 회수되어 많은 자금부담을 준다. 그러나, 輸出支援金融은 자본재산업이 국내 타산업에 대해 前·後方 聯關效果(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가 크며, 또한 고용기회를 크게 제공한다. 資本財產業은 그 규모나 상품의 성질상 여타 산업생산제품의 중요한 수요원이며,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他產業에 전용될 수 있고, 고용기회의 제공으로 失業率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에 비해 輸出의 증대는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要因 중의 하나였다. 또한 과거에는 경공업제품의 輸出伸長으로 수출의 증대를 꾀했으나, 비교우위 면에서 타개발도상국에 비해 한계가 있으므로 70年代 후반부터 重化學工業政策의 推進에 따라 重化學工業製品의 수출증대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물론 단시간 내의 무리한 產業構造의 전환에 따른 중화학공업의 추진의 결과가 經濟成長에 부작용을 야기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거액의 投資가 重化學工業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動態的인 면에서 80年代의 비교우위를 감안하면 80年代의 成長主導產業으로서의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점점 증대될 것이며 그 중에서 자본재산업의 비중이 커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資本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財產業에서 가장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國內經濟의 需要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자본재 생산업자는 輸出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본재 산업은 세계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요의 증감은 大單位 生産企業인 자본재 산업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어 기업경영의 위험도를 증대시킨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한 수요 부족과 기업경영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資本財產業에 대해서는 延拂支援을 통한 輸出促進이 필요하다.

中長期輸出支援金融에는 보통 국내수출업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供給者信用, 외국인 수입업자에게 직접 자금을 공여하는 購買者信用, 그리고 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轉貸借款 등이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중장기수출지원금융은 주로 購買者信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供給者信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購買者信用의 경우 自國貨幣로 지원될 경우에는 자본재의 수출로 얻은 이득이 長期間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輸出의 효과가 資本收支에서 신용의 지급으로 기록되어 상쇄되므로 國際收支上에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액에 비하여 작은 이자수입 및 원금상환액만이 국제수지상 純增加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外貨表示輸出金融인 경우에는 國際收支改善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이는 자본수지상 신용의 지급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借入으로 인한 자본의 수입증가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國際金融市場借入金의 상환은 지급자금의 회수시기와 동시에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금리는 固定金利에 의한 輸出金融金利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貿易外收支에 두 방식 사이의 손실 및 이득이 반영된다.

延拂輸出供給者信用의 경우에는 대금의 회수는 연불로 이루어지는 반면, 생산에 필요한 외국에서의 원자재수입은 단기에 이루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가 改善되나 단기에는 국제수지가 惡化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 II.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의 現況

1980년의 지원규모 결정과 현행 연불수출지원제도의 問題點分析 및 改善方案을 提示하기 전에 현행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의 現況을 알아보자.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中長期輸出實績 및 이와 관련된 資金支援規模는 미비한 편이다. 1970년에 40만달러에 불과했던 중장기수출실적은 1978년에 506백만달러에 달하여 쏠

〈表 1〉年度別 中長期輸出實績

(單位：百萬달러, %)

	入 金 額			船 積 履 行 額			우리나라의 總 輸出額(C) <sup>(1)</sup>	比 重	
	一覽拂	延 拂	計(A)	一覽拂	延 拂	計(B)		A/C	B/C
1970	1.4	—	1.4	—	—	—	835.2	0.2	—
1971	3.1	0.1	3.2	—	—	—	1,067.6	0.3	—
1972	7.5	1.3	8.8	—	—	—	1,624.1	0.5	—
1973	82.4	0.3	82.7	3.1	1.1	4.2	3,225.0	2.6	0.1
1974	215.0	1.4	216.4	56.8	4.5	61.3	4,460.4	4.9	1.4
1975	141.6	9.8	151.4	140.7	17.1	157.8	5,081.0	3.0	3.1
1976	294.0	12.2	306.2	286.3	5.5	291.8	7,715.1	4.0	3.8
1977	211.1	92.3	303.4	275.5	120.6	396.1	10,046.5	3.0	3.9
1978	211.0	171.7	382.7	271.9	234.4	506.3	12,710.6	—	4.0
1979	293.5	96.9	390.4	247.5	212.4	459.9	15,055.5	—	3.1
1980	109.6	162.8	272.4	101.7	376.1	477.8	17,504.9	—	2.7
累 計	1,570.2	548.8	2,119.0	1,383.5	971.7	2,355.2	79,325.9	2.7	3.0

자료 : 『주간내외경제』

註 : (1) 通關基準

體輸出에서 접하는 비중이 4.0%로 높아졌으나, 1980년에는 선박수출의 불황으로 478백만 달러에 머물러 總輸出額에 대한 비중도 2.7%로 낮아졌다.

去來條件別 증장기수출추이를 보면 1970年 초기에는 一覽拂條件이 증장기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77년부터 延拂輸出條件의 증장기수출이 늘어나, 1980년에는 延拂輸出條件이 증장기수출의 78.7%로 높아졌다.

〈표 2〉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장기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선박이 1979년에 74.9%, 1980년에는 85.7%를 차지하여 大宗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계류가 1979년

〈表 2〉品目別 中長期輸出實績(履行基準)

(단위 : 百萬달러, %)

	1979		1980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선 박	344.6	74.9	409.6	85.7
기 계 류	70.4	15.3	57.3	12.0
전 기 기	12.2	2.7	2.6	0.5
철 강	3.0	0.7	2.5	0.5
금 속 제 품	3.0	0.7	2.8	0.6
모 우 터 차 량	2.0	0.4	1.6	0.3
기 타	24.7	5.4	1.4	0.3
합 계	459.9	100.0	477.8	100.0

資料 : 輸出入銀行, 『주간내외경제』

에 15.3%, 1980년에 1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은 대부분 供給者信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은 수출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引渡前金融과 수출대금회수 시기까지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引渡後金融으로 구분된다. 引渡前金融은 수출목적물의 引渡後에는 引渡後金融으로 이전된다.

現在 引渡前金融과 引渡後金融의 중요한 차이점은 <표 3>에서와 같이 引渡前金融의 원화 금융은 이자가 원화에 대해서 8% 부과되나, 수출목적물의 引渡後에는 引渡後金融으로 이전되어 원화금융부분이 外貨金融으로 바뀌며, 이자는 外貨에 대해서 같은 8%가 부과되고 外貨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1980年 1月 18日 以前까지는 수출입은행이 引渡前金融과 引渡後金融을 전담하였으나 資金調達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종합금융상사도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延拂輸出金融의 一部를 취급하는 協助金融體制를 도입하였다. 融資比率은 引渡前金融과 引渡後金融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표 3>에서와 같이 1980年 1月 부터는 비율을 차등하여 引渡前金融에는 종래와 같이 先受金受領額을 공제한 殘額의 90% 내에서 지원하는 반면, 引渡後金融은 수출계약금액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한 基準先受

<表 3> 中長期輸出金融의 融資條件推移

	1977. 5. 2	1979. 1. 12	1980. 1. 18	1980. 7. 10 以後
金 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引渡前金融 : 7%</li> <li>(外貨所要資金은 中長期貸出金利)</li> <li>· 引渡後金融 : 7%</li> </ul>	左 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引渡前金融 : 8%</li> <li>(外貨所要資金은 中長期貸出金利)</li> <li>· 引渡後金融 : 8%</li> </ul>	左 同
融 資 比 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産業施設 및 船舶 : 80%</li> <li>· 部品類 : 70%</li> <li>· 鐵道車輛 및 其他 : 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産業施設,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電氣機器 : 90%</li> <li>· 部品類 : 70%</li> <li>· 鐵道用 以外の 車輛 및 其他品目 : 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引渡前金融&gt;</li> <li>· 産業施設,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電氣機器 : 90%</li> <li>· 部品類 : 70%</li> <li>· 鐵道用 以外の 車輛 및 其他 品目 : 75%</li> <li>&lt;引渡後金融&gt;</li> <li>· 全品目 :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引渡前金融&gt;</li> <li>左 同</li> <li>&lt;引渡後金融&gt;</li> <li>· 全品目 : 70%</li> </ul>
融 資 期 間	最長 10年(例外認定)	左 同	左 同	左 同
備 考			協調融資制度導入 (引渡後金融)	協調融資制度擴大 (引渡前後金融)

資料 : 輸出入銀行, 『주간내외경제』

金率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引渡前金融의 金利를 보면, 원화금융부문에는 8%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외화금융 부문에는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 하에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며 금리는 LIBO+가산금이 된다. 引渡後金融의 경우에는 원화금융이 외화금융으로 전환되며 8%의 金리가 부과된다. 따라서 引渡後金融의 실질금리는 수출입은행이 부과하는 외화에 대한 8%와 협조융자부문에서 부과된 이자율에 각각 자금비율에 해당하는 加重值를 주어 계산이 된다.

중장기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품목은 플랜트, 선박, 철도차량, 기계류, 전기기구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第13條에 정하는 資本財에 국한되고 있다. 1972年 이후 1980年까지 대출된 중장기수출지원금융(기술제공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지원 제외)은 총 1조

〈表 4〉 資金別・品目別 貸出承認

(單位: 10億圓)

資金別	年度別										累 計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輸 出 資 金	플랜트	0.4	—	—	—	—	3.3	84.2	5.4	48.1	141.4 (13.8)
	船 舶	1.0	2.1	0.5	33.1	78.1	100.9	22.9	359.6	197.1	795.5 (77.6)
	鐵道車輛	—	—	—	5.5	2.6	—	—	1.7	2.6	12.4 (1.2)
	機械類・其他	0.0	—	0.5	0.8	1.1	1.4	12.7	4.4	3.3	24.1 (2.4)
	小 計	1.4	2.1	1.0	39.4	81.8	105.6	119.8	371.1	251.1	973.4 (94.9)
購 買 者 信 用	—	—	—	—	—	—	—	39.2	1.5	40.7 (4.0)	
轉 貸 借 款	—	—	—	—	—	—	—	5.8	5.3	11.1 (1.1)	
總 計	1.4	2.1	1.0	39.4	81.8	105.6	119.8	416.1	257.9	1,025.2(100.0)	

資料: 輸出入銀行, 『주간내외경제』

註: ( )內는 構成比(%)

〈表 5〉 日本 EXIM의 輸出資金貸出의 品目別 貸出承認額 및 構成比

(單位: 億圓)

年度	品目									合 計
	船 舶	航空機	車 輛	電氣機械	通信機械	纖維機械	鐵鋼製品	其 他 耐 久 性 產 業 機 械	消 費 財 貨	
1 9 7 0	2,231	35	106	213	124	277	32	948	—	3,965
1 9 7 1	2,049	24	104	188	50	116	38	1,149	19	3,744
1 9 7 2	2,166	10	27	68	91	58	82	1,161	—	3,664
1 9 7 3	1,371	3	22	35	22	67	8	772	—	2,300
1 9 7 4	941	—	41	132	46	247	126	1,127	—	2,660
1 9 7 5	746	—	49	308	56	155	89	3,408	—	4,810
1 9 7 6	2,693	—	101	882	95	212	61	2,056	—	6,101
1 9 7 7	1,368	—	63	972	130	106	37	2,709	—	5,285
1 9 7 8	322	—	117	551	61	61	22	1,989	—	3,123
1 9 7 9	177	—	81	838	92	221	69	1,927	—	3,405

(單位：%)

年度	品目								
	船 舶	航空機	車 輜	電氣機械	通信機械	纖維機械	鐵鋼製品	其 他耐 久	產業機械 消費財等
1 9 6 4	71.9	0	4.0	4.4	0.2	4.7	1.8	12.4	0.4
1 9 6 5	62.9	0	1.9	2.0	0.8	9.9	3.1	17.7	1.5
1 9 6 6	71.3	0.9	2.4	1.2	0.1	3.2	2.1	18.9	0
1 9 6 7	59.6	0.2	5.4	2.2	0.3	5.1	2.0	25.2	0
1 9 6 8	56.8	4.4	5.6	6.3	1.4	3.7	1.9	19.8	0
1 9 6 9	59.0	2.9	3.4	5.1	1.3	4.6	2.1	21.5	0
1 9 7 0	56.3	0.9	2.7	5.4	3.1	7.0	0.8	23.9	0
1 9 7 1	54.7	0.6	2.8	5.0	1.6	3.1	1.0	30.6	0
1 9 7 2	59.1	0.3	0.7	1.9	2.5	1.6	2.2	31.7	0
1 9 7 3	59.6	0.1	1.0	1.5	1.0	2.9	0.3	33.6	0
1 9 7 4	35.4	0	1.5	5.0	1.7	9.3	4.7	42.4	0
1 9 7 5	15.6	0	1.0	6.4	1.7	3.2	1.9	70.9	0
1 9 7 6	44.1	0	1.7	14.5	1.6	3.5	1.0	33.7	0
1 9 7 7	25.4	0	1.2	18.1	2.4	3.5	0.7	50.3	0
1 9 7 8	10.3	0	3.7	17.6	2.0	2.0	0.7	63.7	0
1 9 7 9	5.2	0	2.4	24.6	2.7	6.5	2.0	56.6	0

資料：日本輸出入銀行

252억 원으로서 국내업자에 대한 수출자금지원이 94.9%에 달하는 9,734억 원으로 대중을 이루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購買者信用과 轉貸借款供與는 각각 4.0%와 1.1%를 점하고 있다. <표 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품목별로 보면 선박이 전체 지원액의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는 1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근년에 플랜트, 기계류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5>는 일본수출입은행의 輸出貸金貸出의 品目別 貸出承認額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수출금융의 용자대상품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I. 延拂輸出支援制度의 問題點

우리가 연불수출지원정책을 택하는 理由는 所得創出 및 雇傭效果가 크며, 長期的으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短期的으로는 輸出補助金을 주어 수출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자본재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資本財產業은 생산·소득 및 고용유발효과가 크며, 國際收支의 隘路要因이 되고 있는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유발효과가 적어서 國民經濟綜合

효과가 큰 산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延拂輸出支援金融에 의한 수출의 증대는 外部經濟效果, 國際收支改善 및 雇傭增大 등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지원에 따른 비용의 증대라는 불리한 효과를 가져온다.

延拂輸出金融이란 일반적으로 市中金利(외국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할 경우 상업차관금리)보다 低利이며, 長期의 상환기간을 가진 「輸出補助金」的 要素를 띤 수출금융이다. 물론 자금의 조달형태에 따라 그 비용에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시중은행의 금리와 연불수출금융금리의 차이를 총지원규모로 곱한 「利差補填額」이 국민경제가 부담하는 費用이 된다. 따라서 延拂輸出金融時에는 한편으로 경제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支援強化와 다른 한편으로는 支援에 따르는 「費用」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延拂輸出支援金融政策의 비용은 우리가 연불수출금융의 규모를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延拂輸出金融의 金利를 시중은행금리와 비교해서 어느 선에서 책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金利의 差異가 적은 경우라도 연불수출금융자금의 공여에만 항상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국내산업이 이용할 자금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 산업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 경우도 있다. 따라서 金利의 差異에 따른 수출보조금 형태의 輸出價格競爭力 위주에 초점을 두느냐, 延拂輸出金融資金의 확보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國內附加價値의 增大 및 國際收支改善에 대한 공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불수출지원금융을 요청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예로 수출금액은 큰 프로젝트이지만 수출품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수출금액의 대부분을 원자재와 에너지를 外國에서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면 所得創出效果나 國際收支改善效果는 거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자본재수출을 延拂輸出金融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불수출지원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연불수출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供給者信用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선 대표적인 선박수출의 경우를 보자. 이 경우 現在價値(present value)로 계산해서 수출액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비용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선박수출시 계약금액의 20%는 4차에 걸쳐 先受金으로 선박의 引渡前에 지급되며, 나머지 80%는 8년 16차에 걸쳐 달러에 대한 年利 9%의 이자로 나누어 지급된다고 하자. 이 경우 年利 9%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適正金利와 차이가 있다면 現在價値로 계산된 선박금액은 계약

금액과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8년 상환의 商業借款을 우리가 年利 14%로 빌려온다고 가정하면, 현재가치로 따진 實質船舶金額은 每期 8%의 이자포함 元金償還額을 每期 14%로 할인(discount)한 금액의 합계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와 같이 經常收支赤字의 누적을 資本收支의 黑字, 즉 자본의 도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기간의 償還期間(maturity)을 가진 자본의 도입시 지불하는 이자율로 現在價值를 구하여 실질선박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물론 이 경우 현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高金利가 償還期間 동안 계속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유로 달러시장에서 빌리는 金利水準이 선진국 특히 미국이 긴축금융정책을 緩和했을 경우 어떤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必要하다.

다음으로 實質船舶費用은 얼마인가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市中銀行金利가 18%이고 引渡前 元貨金融과 外貨(달러)金融에 各各 8%의 利子가 부과되며, 이 기간 동안에 원화가 달러에 대하여 10% 평가절하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두나라의 實質利子率이 同期間에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적인 입장에서 元貨費用의 계산은 시중금리인 18%로 해야 하며, 이것은 外貨(달러)金融에 대한 8%金利와 일치한다. 그러나 生産者는 금리를 8%로 하여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實質費用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換率이 700:1이고 100만달러에 해당하는 元貨를 1年間 8%의 이자로 빌렸다가 달러로 갚을 경우 實質費用은 108만달러인 데 반해 生産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98만달러가 되어 實質費用을 훨씬 과소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가격은 과대평가되고 費用은 과소평가된 상태에서 豫상이익의 계산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元貨金融에 대해서나 外貨(달러)金融에 대해서나 같은 利子率이 부과되고 원자재수입은 外貨金融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점이다. (규정상으로는 원자재수입 외화금융은 중장기 외화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앞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외국(이 경우 미국)보다 높으면, 이를 반영하여 管理變動換率制度下에서 元貨는 평가절하될 것이다. 이 경우 外貨金融의 實質費用이 크므로, 元貨金融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원자재수입액을 실제 필요한 수입액보다 훨씬 작게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달러에 대한 換率이 1980年 年평균 610에서 1981年 年평균 677로 변해서 원화는 1年 동안에 11%가량 平價切下되었다. 이 경우 元貨에 대한 8%의 金利는 「달러」로 대부받은 금액보다 일년후 원금과 이자를 輸出業者가 달러로 지불하는 金額이 더 작은 것을 보여주



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관리변동환율제도 하에서 두나라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換率이 평가절하된다면, 自國貨幣로 대부분은 것이 輸出業者에게는 그만큼 利益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船舶延拂輸出支援의 경우 引渡前金融에서 外國에서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인 外貨表示資金의 需要와 先受金이 일치되고 나머지는 모두 元貨金融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듯하다. 이는 先受金限度內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債務保證을 받고 실제에 있어서 必要한 外貨는 換率이 인상되기 전 融資받은 元貨를 다시 公定換率로 外貨를 바꾸어 必要한 원자재수입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 원자재수입에 必要한 外貨의 양을 先受金限度로 줄여서 보고할 충분한 유혹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한 뒤 協調融資의 比率를 外貨資金所要比率만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延拂輸出支援政策金融에 따른 輸出價格을 인하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支援政策에 따른 補助金이 없어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에 支援政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 IV. 延拂輸出支援制度의 強化 및 改善方案

##### 1. 費用-便益分析의 適用

延拂輸出支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所得創出效果나 國際收支改善效果를 증진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국내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연불수출지원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물론 단기간에 所得創出效果나 國際收支改善效果는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經濟成長을 주도하여 國民經濟綜合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産業이 있다. 따라서 外部經濟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분석에 덧붙여 정책입안자의 주관과 가치판단에 따라 지원규모와 보조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는 費用-便益(cost-benefit)分析方法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延拂輸出의 경우 현재가치 실질계약액에서 현재가치 外貨所要費用을 빼서 附加價值를 구한다. 이 부가가치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크기와 소득창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부가가치를 구할 때 市場金利를 기회비용으로 보아 실질계약액과 실질비용을 계산하여 현재가치로 부가가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개도국의 금리수준은 資本의 限界收益率과는 거리가 멀고 정책입안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他國內

産業의 손익계산 자체가 市中金利에 의해서 결정되고, 연불수출금융의 금리가 시중금리수준에 비하여 어떠한 선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므로 시중금리를 이용하여 現在價値를 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가치 계산은 연불수출의 경우에 여러 時點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설명의 편의상 자본재의 引渡時를 기준으로 계산할 하도록 하자. 물론 이것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자본재수출 契約時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延拂輸出의 경우 계약이 주로 달러貨로 이루어지고 수출대금이 분할 상환되므로 먼저 달러로 現在價値 수출계약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수출대금의 一部는 先受金으로 자본재 인도전에 支拂되므로 先受金에 대해서는 지불시에서 자본재 인도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金利를 계산하여 現在價値를 구하여야 한다. 반면 자본재 引渡後에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延拂金의 경우에는 연불금에 대한 金利와 국제시장금리의 差異에 따라 현재가치 연불금이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약 300억달러의 外債를 짊어지고 있고 상업차관에 대해서 LIBO에 가산금(spread)을 더한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現在價値 延拂金은 미래에 회수되는 연불금과 이자액을 國際市場金利水準으로 할인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이다. 연불수출계약액을 A라고 하고 100x%에 대해서는 先受金으로 2기에 나누어 半씩 지불되고, 國際市場金利가 100r%라고 하자. 또한 延拂金에 대한 金利가 100r%이고 n기간에 걸쳐 상환되며 상환기간 동안 國際市場에서의 金利水準은 平均 100r% 선에서 유지된다고 하자.

이 경우 자본재 인도시 현재가적으로 先受金을 계산하면,

$$\frac{Ax}{2}(1+r)^2 + \frac{Ax}{2}(1+r). \tag{1}$$

또한 연불금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S = \frac{(1-x)A}{n} + \frac{(1-x)A}{n} \left( \frac{1+r}{1+r} \right) + \dots + \frac{(1-x)A}{n} \left( \frac{1+r}{1+r} \right)^{n-1}.$$

즉

$$S = \begin{cases} \frac{(1-x)A}{n} \left\{ 1 - \left( \frac{1+r}{1+r} \right)^n \right\} \\ \left( 1 - \frac{1+r}{1+r} \right) \end{cases}, r > r, \tag{2}$$

$$(1-x)A, r = r.$$

따라서 이 경우 현재가치 수출계약액은 (1)과 (2)를 합한 금액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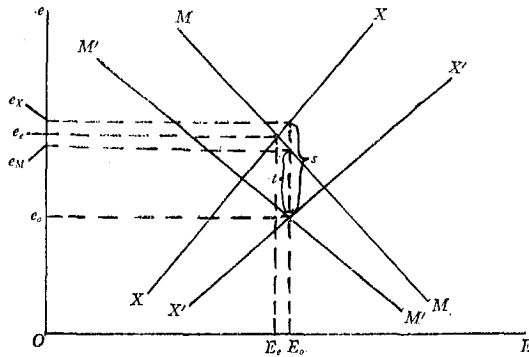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재가치로 附加價値를 얻기 위해서는 器資材輸入 등에 쓰인 外貨總額을 현재가치로 계산해야 한다. 물론 外貨資金所要는 자본재의 引渡前에 發生하게 되므로 현재가치

로 외화자금소요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先受金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金利를 가산해야 된다. 가령 外貨資金이 2期에 걸쳐 各各  $B_1, B_2$ 씩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현재가치 외화소요액을 계산하면,

$$B_1(1+r)^2 + B_2(1+r). \quad (3)$$

따라서 (1)과 (2)를 합한 금액에서 (3)을 빼 주면 現在價値로 附加價値가 계산된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는 달러로 계산된 부가가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타의 신흥공업국과 마찬가지로 政府의 輸出入에 대한 간섭으로 公定환율은 外換의 실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수입의 경우 政府의 간섭은 關稅 및 輸入割當制 등의 형태를 띠며, 수출의 경우는 輸出補助金の 형태를 띠고 있다. 輸出補助金과 關稅가 부과되어 있을 경우 公定환율과 잠재환율(shadow exchange rate)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림 1>

<그림 1>에서 종축은 換率을 나타내고 횡축은 外換에 대한 需要·供給을 나타내고 있다.  $MM$ 곡선은 關稅가 부과되었을 경우 수입업자의 需要變化를 보여준다.  $XX$ 곡선은 換率의 변화에 따른 수출업자의 外換供給을 보여주며,  $X'X'$ 곡선은 輸出補助時의 外換供給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政府의 간섭이 없다면 均衡換率은  $e_0$ 에서 결정되며 外換供給은  $E_0$ 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때 公定환율이  $e_0$ 에서 결정되면 外換의 供給은  $E_0$ 에서 균형을 이루며, 수출업자의 실효환율은 公定환율에 달리당 보조금( $s$ )를 합한  $e_x$ 에서, 수입업자의 실효환율은 公定환율에 달리당 平均關稅( $t$ )를 합한  $e_m$ 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政府의 간섭이 없을 경우의 잠재환율( $e_s$ )은  $e_x$ 와  $e_m$ 의 加重平均値가 된다. 엄격히 말하면 수출입의 加重値는 각 제화의 輸出價格彈力性과 輸入價格彈力性을 반영하여야

한다.

발라사(Balassa)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잠재환율의 공정환율에 대한 비율인 潛在換率係數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되었다.

$$\frac{e_e}{e_o} = \frac{\sum_i E_X X_i + \sum_i E_M M_i}{\sum_i E_X X_i / (1 + s_i) + \sum_i E_M M_i / (1 + t_i)} \quad (4)$$

$e_e/e_o$  : 잠재 환율계수       $X_i$  : 수출       $M_i$  : 수입  
 $E_X$  : 수출가격 탄력성       $E_m$  : 수입가격 탄력성  
 $s_i$  : 관세율       $T_i$  : 수출보조율

潛在換率係數를 실제로 구함에 있어서 각 제화에 대한 輸出入價格彈力性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모든 제화의 輸出入價格彈力性을 1이라고 가정하면 潛在換率係數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해진다.

$$\begin{aligned} \frac{e_e}{e_o} &= \frac{\sum X_i + \sum M_i}{\sum X_i / (1 + s_i) + \sum M_i / (1 + t_i)} = \frac{\sum X_i (1 + s_i) + \sum M_i (1 + t_i)}{\sum X_i + \sum M_i} \\ &= \frac{(X + S) + (M + T)}{(X + M)} \end{aligned}$$

$X$ : 총수출액     $M$ : 총수입액     $S$ : 총수출보조금     $T$ : 관세총액

위의 假定下에서의 潛在換率係數는 리틀-미리스(Little-Mirrless)에 의해 주장된 標準轉換係數(standard conversion factor)의 역수가 된다.

外換에 대한 잠재가격이 공정환율보다 높아서 外貨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外貨稼得額에 潛在換率을 곱하여 圓貨로 환산한 액수만큼 수출입자는 국내생산증대에 기여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외화가득액에 潛在換率과 公定換率의 차이를 곱하여 圓貨로 환산한 금액만큼의 혜택이 자본재 수출입자에게 가도록 하는 선에서 輸出金融의 金利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國民經濟的 입장에서 타당하다.

引渡前金融에서 外貨稼得額에 대한 圓貨貸出時 잠재 환율계수에서 1을 뺀 부분에 상당하는 利率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수출계약금만큼 대출이 될 경우에는 外貨稼得額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잠재 환율계수에서 1을 뺀 부분에 곱하여 이를 금리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화가득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잠재 환율로 계산하였을 때 이 圓貨금액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延拂支援을 받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外部經濟效果가 커

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도 잠재환율로 계산된 附加價值 부분이 적어도 國產器資材費用과 勞務費를 충당하여야만 輸出支援金融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하면 수출지원금융에 필요한 총자금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기업에 대한 投資收益은 引渡後金融의 금리를 국제금융시장의 金利 수준에 비하여 어떤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延拂金에 대한 금리는 OECD 국가의 경우에는 OECD 가이드 라인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언젠가는 가이드 라인을 지켜야 할 입장에 놓일 것이 예상된다. 또한 延拂輸出의 경우 信用條件(credit condition) 자체는 우리가 他國과의 경쟁 상태에서 他國水準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연불금의 金利는 국제시장금리수준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자본재 인도시 원貨로 표시된 引渡前金融이 달러貨 표시의 引渡後金融으로 전환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金利가 延拂金 金利보다 높고, 만약 引渡後金融에 대하여 延拂金과 같은 수준으로 금리가 부과된다면, 두 金利水準의 差異만큼 인도후금융액수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利益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外部經濟效果가 커서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산업에 대하여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하면서, 適正投資收益率을 인도후금융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보장해 줌을 의미한다.

연불수출의 주요품목에 대해서도 一覽拂輸出을 권장하는 유인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우리가 상당한 양의 外債를 짊어지고 있다는 점과 一覽拂輸出의 경우 현재 가치 수출액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어 연불수출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불수출 중요품목이 一覽拂輸出이 될 경우에는 연불수출의 경우 引渡後金融에서 주는 특혜를 감안하여 引渡前金融利子를 하향 조정하여 一覽拂輸出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 2. 物價의 安定

앞서 말한 附加價值基準의 延拂輸出支援金融政策은 우리나라와 外國(여기서는 주로 美國)의 인플레이션의 차이에 따라 시중이자율이 각각 다르고, 또한 이에 따른 원貨의 平價切下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가 힘들다. 두 나라의 인플레이션률이 다른 경우 이 인플레이션률이 반영되어 두 나라의 명목상의 利子率이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現行 市中金利가 20%인 점에 비해 달러貨에 대한 國際金融市場에서의 금리가 14%라고 하자. 또한 引渡前 원貨金融에 대하여 8%의 금리가 부과되며 資本財引渡時 달러표시 引渡後金融으로 전환된다고 하자. 이 경우 固定換率制度가 유지된다면

원貨에 대한 8%의 金利는 달러貨에 대한 8%의 金利와 같게 된다. 따라서 國際市場金利에 대해서는 6%의 특혜가 되나 國內市場金利에 대해서는 그 특혜폭이 12%가 된다. 만약에 國內의 높은 인플레이션率을 반영하여 달러貨가 6% 平價切下된다면 원貨에 대한 金利幅이 外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달러로 계산하였을 경우에 金리가 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引渡前金融에서 引渡後金融으로 넘어갈 경우 원貨金融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러로 계산하였을 경우에 2%의 실질금리만이 지불된다는 점이다.

위의 경우 管理變動換率制度下에서는 두 나라의 인플레이션率을 반영하여 환율 자체가 平價切下가 될 것이다. 실제 평가절하비율은 非交易財와 交易財 간의 비중, 資本移動問題 등에 의하여 6% 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원貨에 대해서는 항상 12%의 금리혜택을 보게 되나, 外貨에 대해서는 6%~12% 사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附加價值에 대한 潛在換率을 감안하여 市中金利에 비해 6%의 특혜를 연불수출금융에 줄 경우 引渡前金融의 金利는 14%가 된다. 이 경우 換率의 變動이 없다면 자본재의 引渡時, 引渡前金融이 引渡後金融으로 넘어갈 때 달러貨에 대하여 14%의 利子를 지급하게 되어 수출업자에게는 달러貨로 계산하였을 때 금리상의 특혜가 전연 없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延拂輸出金融制度가 效率的으로 運營되려면 國內의 인플레이션을, 국제수준으로 줄이고 國內이자율 자체도 국제수준으로 낮추어 원貨나 달러貨 어느 通貨로 계산하든 같은 수준에서 수출보조금융의 비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率을 국제수준으로 줄여 換率의 변화가 없을 때에 수출지원 금융에 따르는 정확한 비용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政策을 입안할 때 物價安定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면 명목상의 이자와 실질이자의 격차가 줄어들고 연불수출금융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과 換率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어 좀 더 확실성을 갖고 경제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 投資收益率分析

프로젝트審査와 引渡前·後金融에서 金利決定은 자본재 수출산업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자본재 수출산업의 投資收益率에 대한 分析이 필요하다. 특히 外部經濟效果의 관점에서 자본재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재 수출산업의 自己資本에 대한 投資收益率이 일반 民間部門產業에서 얻을 수 있는 投資收益率을 보장받는 方向으로 輸出金融支援制度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投資收益率의 分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재 수출산업에 대한 철저한 分析을 할 必要가 있다. 예를 들어 선박회사가 선박을 연불수출할 경우에는 선박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금운영표에서 投資收益率에 대한 分析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現在 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선박회사에 대한 分析을 하지 않고 선박 단위비용과 收益에 대한 投資收益率만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自己資本收益率은 自己資本의 몇 %에 해당하는 當期純利益이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데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自己資本收益率(return on equity)=法人稅控除後純利益/自己資本」이 된다.

問題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法人稅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이 負債와 自己資本으로 構成되었을 때, 負債의 比重에 따라 自己資本收益率과 總資產利益率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겠다.

이해의 편의상 식으로 표시하면,

$$X_s = \bar{X} - k_d D = k_a A - k_d D = k_a (S + D) - k_d D$$

$$X_s / S = k_a + (k_a - k_d) D / S$$

A: 총자산             $\bar{X}$ : 일년간 예상수익

$k_a$ : 총자산에 대한 이익율

$X_s$ : 주식소유자에게 돌아갈 연간 예상수익

$k_d$ : 부채에 대한 금리

$X_s / S$ :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율

따라서 이 경우 自己資本收益率은 부채와 자본의 비율, 총자산이익율, 부채에 대한 金利에 의해서 결정된다. 總資產利益率이 부채에 대한 金利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이 自己資本의 利益率을 결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總資產利益率이 부채에 대한 金利와 상이한 경우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이 自己資本의 利益率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총자산에 대한 平均利益率이 13%이며 負債에 대한 金利가 8%이고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2:1인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收益率은 23%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위험을 감안한 상태에서 總資產平均利益率이 부채에 대한 金利보다 크면 클수록 自己資本利益率이 높아진다. 또한 부채와 자본의 比率를 증가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自己資本에 대한 收益率을 얻으려는 충동이 커질 것이다.

반면 1980년도와 같이 經濟不況이 닥쳐 총자산에 대한 平均利益率이 부채에 대한 金利수

〈表 6〉 財務構造差異에 따른 自己資本利益率變化

(單位：%)

총자산에 대한 이익율	負債와 自己資本比率 (D/S)			
	0	1	3	5
1	1	-6	-20	-34
5	5	2	-4	-10
8	8	8	8	8
10	10	12	16	20
13	13	18	28	38

註：負債에 대한 8% 금리 가정.

준에 훨씬 미달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에 대한 收益率은 가속적으로 악화되어 自己資本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표 6〉은 부채에 대한 金利가 8%인 경우 부채 및 자본금 比率과 總資產利益率의 변화에 따른 自己資本利益率의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로부터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파산(bankruptcy)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본제 수출산업의 總投資利益率이 投資의 社會的 機會費用을 상회한다면 이는 자본제 수출산업이 미래에 外部經濟效果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만족시키므로 이러한 것이 이상적이다. 현재의 사회적 기회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나 外部經濟效果가 커서 장래의 所得創出과 經濟成長에의 기여도가 크리라 생각되는 자본제 수출기업에는 자기자본에 한하여 民間部門의 投資收益率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協調融資體制整備 및 海外投資金融制度確立

延拂輸出金融時 외국은행과의 協調融資體制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輸出入銀行이 독자적인 프로젝트분석연구팀을 가지고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 분석에서 外貨資金所要額이 결정되면 수출업자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은행에서 現行 國際金利水準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輸出入銀行은 채무보증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외국은행의 協調融資比率를 외화자금소요비율만큼 끌어 올리고 輸出入銀行에서는 원화수출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協調融資體制를 이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자율 자체가 市場利率을 반영하는 方向으로 나가게 되며 또한 이는 80年代의 금융의 국제화에 부응하여 필요하다. 특히 購買者金融의 확대시 위험성 및 債務不履行(default)問題, 담보문제 등에 있어서 이윤지향적인 외국은행의 分析方法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으며 위험의 분산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協調融資比率의 조정을 통해 실질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은 대조적인 延拂輸出金融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경우 대부분 購買者金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이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는 品質競爭과 價格競爭을 기업체에 맡기고 수출금융의 金利는 시중은행금리와 별차이가 없으며 다만 자본확보를 해 주고 수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결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금의 확보보다는 수출보조금으로서의 延拂輸出金融의 역할이 더욱 크다. 두 나라의 경우 모두 輸出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두 나라 모두 수출을 촉진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한 경우이지만 서로 다른 方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적어도 5차 5개년 동안은 프랑스와 같은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延拂輸出金融金利를 단계적으로 一般市中金利에 접근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低利의 延拂輸出金融에 의한 輸出補助金은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대체되어 수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첫 단계로 一般輸出金融金利와 延拂輸出金融金利를 일치시키는 方向으로 나가야 하며 연불수출금융은 궁극적으로 보조금의 지급보다는 연불수출을 위한 자금의 확보면에 중점을 두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연불수출금융의 규모가 國民總生産(GN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자금의 확보는 대부분 기존 대출금의 회수로 충당된다.

海外投資는 일반적으로 투자동기를 시장확보형, 자원확보형, 노동확보형, 해외입지활용형, 경제협력형 및 다국적기업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급속한 工業化過程에서 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確保를 위하여 海外投資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長期低利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海外投資資金의 규모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표 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日本의 경우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70년 이래 海外投資金融은 日本輸出入銀行 총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投資金融이 80년대에는 상당히 늘어나라 예상되며 資源開發投

<表 7> 日本의 部門別 融資承認構成比

(단위 : %)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수출	100	100	100	98.56	99.82	98.44	98.77
기술	0	0	0	0	0	0	0
수입	0	0	0	0.47	0	0	0.08
투자	0	0	0	0.97	0.18	1.56	1.15
개발	0	0	0	0	0	0	0
직접	0	0	0	0	0	0	0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수	출	82.05	97.63	97.67	78.10	67.30	83.91	79.22
기	술	0	0	0	0	0	0	0.16
수	입	1.30	0.62	2.19	0.18	1.94	0.47	0.26
투	자	16.65	0.89	10.98	7.84	9.16	2.34	3.80
개	발	0	0	0	0	0	0	0
직	접	0	0.86	7.17	13.88	21.61	13.28	16.56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수	출	79.46	70.82	71.26	73.85	79.31	81.79	74.03
기	술	0.54	1.34	0.57	0.77	0	0	0
수	입	0.05	1.30	2.44	0.11	2.40	3.21	6.21
투	자	6.26	3.99	4.82	6.27	4.39	7.58	12.78
개	발	0.84	0	0	0.47	0	0	0
직	접	12.86	22.56	20.91	18.52	13.90	7.42	6.97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수	출	56.72	31.08	26.39	50.11	48.52	59.68	26.61
기	술	0	0	0.15	0.04	1.52	0.20	1.00
수	입	15.34	25.26	24.12	12.51	8.14	10.05	49.72
투	자	12.91	27.18	14.75	13.36	10.16	6.92	10.67
개	발	0	0	0	0	0	0	0
직	접	15.03	16.49	34.59	23.98	31.67	23.16	12.00

자료 : 일본수출입은행

資産業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海外投資金融은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자재분석, 투자대상국의 수용태세분석 그리고 위험도를 측정한 뒤 결정되어야 한다.

2차대전 후 先進國의 多國籍企業 및 海外投資의 전개과정과 先進各國의 다국적기업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投資金融制度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